

미투, 문단 권력에 돌 던지다

최영미 시인 '미투' 고발 계기
문학 담론의 장 열어야
SNS 통해 문인들 갑론을박
“단정적 매도는 금물”

최영미 시인의 문단 내 성추행 발인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잘못된 문화를 경계하고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단 안팎에서는 오랫동안 묵혀왔던 것이 풀이 터져 나왔다. 차체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문단 내 등단을 두고 파생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조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구나 알 만한 유명 시인에 의해 성 폭력 문제가 공론화됐다. 이는 점에서 휘발성이 강하다. 최영미 시인은 최근 jtbc 인터뷰에서 “내가 등단할 때 일상화 돼 있었다. 첫 시집을 1994년에 내고 문단의 술자리에 많이 참석했는데, 그때 목격된 풍경은 놀라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1994년 이번 최영미 시인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를 발표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시집이다.

또한 최 시인은 시 ‘괴물’(황해문화) 2017 겨울호 게재에서 “K의 충고를 감박 있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Me too(미 투)/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고 써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문단 안팎에서는 최근 제기된 '성폭력' 문제를 문학 담론의 장으로 끌어와 새로운 문학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전남작가회의의 2016년 시화전 모습으로 본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 <광주전남작가회의 제공>

이에 앞서 김현 시인은 “21세기 문학” 2016년 가을호에 기고한 ‘질문있습니다’라는 글에서 수년 전 목격담을 밝혔다. 글속 남성 시인들은 여성 시인들을 옆에 앉히고 술을 따르거나, 술이 다 차지 않았을 때는 술잔을 자신의 바지 앞에 가져가 희롱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의 ‘미투’ 발언으로 파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인들이 페이스 북에 의견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의 의견은 “무조건 매도해서는 안된다”와 “성희롱은 실수 아닌 범죄”라는 내용으로 집약된다.

류근 시인은 “암울했던 시대에 그가 발휘했던 문학적 성취와 투쟁의 업적은 여기서 내려놓고 이야기해야겠다. 그의 온갖 비도덕적인 스캔들을 다 감싸 안으며 오늘 날 그를 우리나라 문학의 대표로, 한국문학의 상징으로 옹립하고 우상화한 사람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나... 위선과 비겁은 문학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학평론가 김명인은 “간자의 명예가 중하면 약자의 명예도 똑 같이 중한 세상이 되었다. 아니 더 나아가 약자의 명예가 더 무거운 세상이 되었다. 그 동안 받은 고통의 증산까지 쳐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이와 달리 다수의 시인들은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승철 시인은 “메이저 출판사와 무소불위의 평론가들의 목계를 강조하면서 그 녀(최영미)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날발했다... 그러나 미투 투사들에 의해 다수의 선량한 문인들이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임동화 시인도 페이스 북에 자신의 생각을 올려 문단이 짜집기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임 시인은 “한 원 날 그를 우리나라 문학의 대표로, 한국문학의 상징으로 옹립하고 우상화한 사람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나... 위선과 비겁은 문학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을 단정하고 확정지는 자들이 아니다. 백 번이고 천 번이고 그 ‘진실’이 무엇인지 묻는 자에 속한다.”

한편 이번의 문제로 문단이 소모화 논쟁으로 비화되거나 미해결된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화경 작가는 “성 관련 문제는 오늘의 시대정신과 맞물려 터져 나온 것이다. 가해자,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되며 이번 기회에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민족이나 민주화 같은 거대담론을 문학이 추구했다면 오늘 시대의 문학은 젠더 감수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연 시인은 “사회 전반에 억눌려 있던 비주류, 여성의 목소리가 문단 내에서도 터져 나왔다고 보는 게 맞다”며 “이번 문제의 본질은 문학의 다양성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적폐 맞서 ‘칼’ 대신 ‘펜’ 든 시인

손광은 시인 등단 55주년 시집 ‘나의 반란’

“파도여 파도여 말하라 / 팽목한 바람 하나가 / 내 가슴속을 찾아 들어 / 진흙 치고 있다 / / 사방에 부서진 시간들을 버려두고 / 우리들의 싸움을 일어설 줄 모르고 / 하늘, 땅, 바다가 포리뱅이 속에서 / 울부짖고 있다 // 부정한 것은 다 가라 / 부정한 것은 다 가라...”(‘파도여 말하라’ 중에서)



손광은 시인(전남대 명예교수·사친)이 8번째 시집 ‘나의 반란’(한림)을 최근 펴냈다.

손 시인은 최근 전화 통화에서 “이번 시집의 주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부정한 것은 다 가라’”이라며 “오늘의 시대정신인 적폐 청산과도 연계된다”고 밝혔다.

정년 이후 6권의 시집을 펴낸 노(老) 시인에게 창작의 정년은 없어 보인다. 더욱이 등단 55주년을 맞이해 펴낸 작품집이라 이번 시집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이번 시집은 리얼리즘 시들을 묶었습니다. 시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부패를 찌르는 칼이며 정의를 부추이는 기동이지요. 어쩌면 내 마음은 자유를 울부짖는 너울성 파도인지도 모르겠네요.”

시집에는 ‘나의 반란(叛亂)’, ‘붓끝이 세상을 바꾼다’, ‘함평문장센터 4·8만세소리’, ‘광화문 대낮에 촛불을 켜라’ 등 저항과 저항, 정의라는 키워드를 수렴하는 시들이 다수 수록돼 있다. 치열하게 울부짖는 그러면서 고뇌하는 시인의 심상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손 시인 특유의 지

성적 감성이 투영된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바라춤’, ‘황포돛배 띄운 영산강’, ‘완사천 연가’, ‘배꽃 피는 계절’은 기존에 써왔던 지성관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작품들이다.

특히 이번 시집에서는 시인의 헌시(獻詩)를 토대로 세워진 다양한 비(碑)를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제1부 ‘금석문 현장’에는 보성 애향탑, 백범 김구선생 은거추모비, 5·18광장 조형물 등 돌에 새겨진 시인의 시 34편도 담겨 있어 의미가 각별하다. 시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 쓴 시와 서정적 상상력으로 형성된 시, 역사의식과 통일의 염원을 투영한 시 등 다채로운 작품이 펼쳐져 있다.

한편 영문학자인 고지문 전남대 명예교수는 발문에서 “손광은 시인의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삶을 긍정하고 예찬하려는 송고한 정신, 그리고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을 이해, 감상, 창작하려는 열린 마음이 있다”고 평했다.

한편 보성 출신 손 시인은 ‘현대문학’에 김현승 시인 추천으로 문단에 나왔다. 광주문인협회 초대회장과 한국시문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광주시 문화예술상(문학), 김현승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올림픽 찬가’ 황수미 “세계가 보는 평창 무대 책임감으로 임해”

“본 무대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콩쿠르 때도 그렇게 떨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계적인 무대를 내가 맡치면 안 된다’라는 책임감이 막중한 것 같아요. 다만 무대에 올라가니 긴장이 가라앉더군요.”

지난 9일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울려 퍼진 ‘올림픽 찬가’의 주인공은 소프라노 황수미(32)였다.

그는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가 디자인한

동양적이면서도 화려한 한복 드레스를 입고 그리스어로 올림픽 정신과 승리를 기원하는 ‘올림픽 찬가’를 불렀다.

1896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처음 불린 이 노래는 1958년 공식 찬가로 제정됐다. 그간 플라시도 도밍고, 몽세라 카바에, 안나 네트렙코 등이 올림픽에서 불렀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소프라노 조수미가 한국어로 이 노래를 불렀다.

이번 평창에서는 당일 강한 바람이나 돌

발 상황 가능성을 고려해 라이브가 아닌 녹음으로 무대가 진행됐다. 이걸 다른 모든 개회식 때도 동일하게 적용돼는 국제 올림픽위원회(IOC)의 지침이다.

서울대 음대, 독일 뮌헨 국립음대 등에서 수학한 그는 소프라노·차이콥스키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퀸 엘리자베스에서 2014년 우승을 거머쥐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현재 독일 본 극장에서 솔리스트로 활약 중이다. /연형뉴스



소프라노 황수미

문화전당 창제작 레지던시 참여자 모집

다음달 5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2018 ACC_R Creators in Lab(크리에이터스 인 랩)의 참여자를 오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

“크리에이터스 인 랩(Creators in Lab)”은 ACC에서 선보일 콘텐츠 발굴을 목적으로 창작자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는 창작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 공학, 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개발자, 연구자

가 참여할 수 있다.

키네틱 아트(Kinetic Art), 인공지능 비주얼&사운드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네 가지 주제의 랩으로 운영되며 선정된 창작자는 쇼케이스 제작 지원비와 함께 융·복합 콘텐츠 제작에 최적화된 창제작센터 스튜디오와 최신 장비, 속도 및 부대적인 참여 프로그램(워크숍,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홈페이지(www.acc.go.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